

천일 염전의 공간구성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 of Architecture in the Saltern

김 흥 섭* 박 언 곤**
Kim, Heungseob Park, Eonkon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understanding on the type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architecture in the saltern. At result, there are warehouse of the salt, residence of salt man and office building. These architectures are clearly different from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constructed in special area (a saltern), on special purpose. These are not excellent architectural form, but materials and forms of these architectures are reasonably suitable for the regional characteristic and the function. Today, the architecture in the saltern, are gradually disappear, therefore the researches and the memories are meaningful in this study.

키워드 : 천일염전, 소금창고, 염부사택

Keywords : Saltern, Warehouse of the salt, Residence of salt man

1. 序 論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소금은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음식물 중의 하나였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중한 소금은 지형적 특성과 기후적 조건,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그 생산지와 생산량이 제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소금의 귀중함은 고대사에서부터 언급되었으며 화폐와 또는 관리들의 봉급으로 지급될 정도로 중하게 여겨졌으며 소금의 관리는 항상 정부에서 관리, 감독 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었다.

* 세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전임강사, 박사과정수료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본 논문은 1997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그 당시의 소금의 제조방법은 바닷물을 끓여 소량의 소금을 얻는 전오제염으로 그 양과 수요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므로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1905년 11월 7일에 일본과 乙巳조약이 체결되어¹⁾ 통감정치가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1907년 일본인 技師에 의해 처음으로 순수한 햇빛과 바람에 의해 해수를 증발, 농축, 소금의 결정을 채집하는 방법의 천일제염법이 경기도 주안에 시험염전 1정보(약 3,000평)를 만든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²⁾ 그 이후 광양만, 군자 등에 계속적으로 염

1) 1905년 11월7일 을사조약체결후, 1906년 2월 1일에는 日本의 統監附加 開廳되고(1905년 12월 21일 일본천황의 칙령, 통감부, 이사정(理事廳) 관제) 3월에는 伊藤博文이 文治組織을 이끌고 初代統監으로 赴任했다. 金晶東, 韓國近代建築의 生成過程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大學院. 1982

전이 건설되어 많은 양의 소금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염전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도시와 가까워서 시장에 대한 경제성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염전주변에는 염부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소금저장을 위한 염창(창고), 그리고 기타의 도구들을 보관하는 창고 및 부속건물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 수입염의 증가와 갯벌의 황폐화, 간척산업 등으로 천일염전은 그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그와 관련된 건축물도 하나 둘씩 소멸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라져 가는 염전건축물의 현황을 실측하고 현존상태와 건축특성을 조사,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진행

본 연구의 목적은 염전건축물의 생성과 특성을 분석하고자함이었으나, 염전시설에 관련된 학술자료를 논문을 거의 소금의 생산과정과 염전의 자연적 현황 등에 치우쳐 있었으며 건축방면의 학술지나 논문에서도 거의 언급된 바가 없어 자료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표적인 현존 염전들을 답사 실측, 조사함으로써 염전구성 건축물들의 공통적 특성과 용도를 밝히고 아울러 주변마을과 관계 도로 등과의 관계를 단지계획적 측면에서의 분석도 가능하여졌다.

2. 소금의 歷史 및 1906년 以後의 우리나라 天日鹽田의 概要와 特性

2.1 소금의 역사

인류가 소금을 만드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은 전오식 채염으로 해수나 염천, 염호에서 나는 액체를 화력에 의하여 증발농축시켜 추출하는 고체를 채집함으로써 염을 생산하였던 것이며, 史蹟에서 보면 약 4,200여년 전인 중국황제시대에 이미 행하여졌으며 이 방법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천일제염이 발명되기 전³⁾까지 혹은 천일제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태고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계도처에서 행해졌다.

우리나라는 육염의 산출은 없고 반도라는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바닷물을 이용한 해염만을 생산하였다.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다. 해안의 모양은 동서에 있어서 그 절을 전혀 달리하고 있으니 동해안 쪽은 사실도이며 해안선은 매우 단조롭다. 그러나 서해안 쪽은 절절토이며 해안선은 극히 복잡한 데다 간만의 차가 심하고 넓은 간석지는 곳곳마다 염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지역이다.

기후와 온도는 남북과 동서에 있어서 심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강우량은 적은 편이다. 더욱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기인 여름철 이외에는 공기가 건조하여 채염상 매우 양호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국토의 면적에 비하여 해안선의 길이가 길고 온화한 기후와 계절풍의 영향 및 바닷물을 이용하는 무진장현 소금원료 등 채염업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우리의 채염법은 그 제조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단계는 소금을 생산하는데 연료를 사용하는 火力에 의하여 채염하는 전오법(煎熬法)으로 채염하는 단계는 고래로 전송하여온 원시적

2) 日帝는 1907년 統監部 財政監査廳에서 「鹽業調査」란 보고서를 만들고 그해 10월에 內閣國務 부로 하여금 天日製鹽은 政府가 試驗中에 있음으로 鹽務行政에 관한 基礎가 確立될 때까지는 民間에게 一切 許可를 하지 않으며 外國人에게도 그 개발權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宣布케 하여 일본인 독점을 위한 기초를 세웠던 것이다(염백서, 상공부, 1964).

3) 천일제염의 발견은 해안바위의 폐인 곳에 남아있던 바닷물이 햇빛에 의해 증발되어 농축된 것을 발견하면서부터였으며 약 1,050년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한 승려가 발견, 동양에는 중국 淸初康熙年間에 天主教傳道師 '제스워드'가 처음으로 전하였고 우리나라에는 1906년 일본인 中興大藏이 시험적으로 주안에 천일염전을 축조케하여 1907년 1町步의 염전을 준공, 소금을 생산하였다(염백서, 상공부, 1964년).

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물적 단계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햇빛, 바람을 이용하여 채염하는 천일법(天日法)으로 채염하는 단계는 근대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염업의 시대구분은 전오제염시기와 천일제염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오제염시기는 고대에서 20세기 초기까지이고 천일제염시기는 1907년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07년 이후의 천일 염전의 구성 건축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2 1906년 이후의 우리나라 천일염전의 개요와 특성

우리나라의 천일염전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05년 日帝가 乙巳保護條約의 체결을 계기로 구한국정부에 대한 施政改善과 財政整理를 돕는다는 구실하에 同年 日賀田種太郎이라는者を 파견하고 國內의 염업을 위시한 諸財源을 두루 調査케하는 한편 1906년에는 中輿大觀으로 하여금 朱安에 시형식으로 천일염전을 축조케하여 1907年 1町步의 염전을 준공하고 소금의 생산작업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형토질, 기후 등의 제 조건이 천일제염상 중국, 대만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으며 소금의 채집량이나 품질, 색채 등도 별로 떨어지지 않음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에 있는 광활한 간척지에 천일염전을 독점개발 한다면 큰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뿐더러 당시 생산비의 고가로 인하여 점차 쇠퇴하여 가는 일본 전오제염의 생산량 감축에 따르는 염수급의 부조화를 해결하는 한편 청국으로부터의 소금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일본의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⁴⁾.

이렇게 하여 천일제염을 관의 독점기업으로 한 일제는 8.15해방 전까지 한반도에 약 7,087정보에 달하는 염전을 축조하였다.

8.15해방 전까지의 천일염전 축조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1945년도의 천일염전 현황 (염백서, 1964.)

구분	염전명	염전면적	준공연도	염전소재지
남한	주안	212 정보	1907. 9.	인천시 주안동
	소래	549 정보	1935.12.	인천시 논현동
	남동	300 정보	1921.12.	인천시 논현동
	군자	603 정보	1925. 3.	경기시흥군군자면
	소계	1,664 정보		
북한	연백	1,268 정보	1942. 9.	경기도 연백군
	광양만	775 정보	1914. 3.	평남 용강군
	덕동	223 정보	1921. 5.	평남 용강군
	귀성	1,535 정보	1922.	평남 용강군
	남시	483 정보	1922.	평북 용천군
	청천	1,139 정보	1921.	평북 청천군
소계	5,423 정보			
합계	7,087 정보			

일제는 해방전까지 평안북도 북단에서 전라남도 남단까지 약 10,000정보의 염전을 구획하였으며, 종래의 독점시책을 완화, 1942년 처음으로 일본인 민간기업체인 朝鮮염업주식회사에 37.5정보의 천일염전 경영을 허가하였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고 해방이 되었다.

8.15해방직후 남한에는 지금은 이북에 속한 연백염전 1,267.5정보와 인천을 중심으로 한 관영염전 1,664정보, 일본인경영 민간염전 37.5정보 등 도합 2,969정보가 있었다.

1946년 미군정하에서 서산염전을 축조하였고, 1956년도까지는 북한을 제외한 전국에 8,883정보의 염전을 확보하였다. 1959년도에는 민간염전이 9,627정보(빈·관을 합치면 10,680정보)에 달하였으며 1961년부터는 공급과잉, 민간염전의 폐건과 소금의 전매사업적자로 인하여 민관을 합쳐 8,600정보로 축소되었으며 1962년 1월 1일부터는 소금 생산을 민영화하고 1963년 10월에는 정부는 염전개발만을 통제하고 소금의 모든 관련업무를 전매청에서 상공부로 이관하였다.

4) 1911년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직제표에서 보면 전매국 염부과에서 소금과 염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金品東, 韓國近代建築의 生成過程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大學院, 1982



그림 1. 1940년대의 천일염전 분포현황

표 2. 1950년 이후의 소금 생산정책

년도	영역	비고
1952	소금증산5개년 계획수립	o 국내소요 소금 자급 목표
1956	염전개발계획	o 조선염전개발 계획
1959	민간염전 자원정비	o 1957년부터 공급과잉 -1959년부터 2년간 1억8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간 염전 1,865헥타르 자원정비
1961	염전정비일시 조치법 제정	o 공급과잉회상 지속 -헥타르당 25만원의 유휴보상금을 지급하여 민간 소금생산 감축 유도 -헥타르당 8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간염전 1,194헥타르 정비
1962	염관리일시조치법 제정	o 염전개발 계획 -민간의 염전개발 허가제도입
1963	염관리법 제정	o 효율적인 소금 수급관리 도모 -소금 관련업무를 전매청에서 상공부로 이관
1967	염업조합법 제정	o 염업조합 설립
1976	염관리법, 염업조합법개정	o 소금 품질검사 의무화 등

현재 국산소금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5) 점차 천일염전은 없어지고 있으며, 국내소금 생산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1997년 현재 남한 전국의 천일염전 면적은 허가면적이 8,774정보이며 가동염전의 면적은 7,665 정보이다.

3. 천일염전의 개요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인 주안, 소래, 군자쪽의 염전과 소금창고는 도시개발과 간척지개발로 인하여 모두 사라져 버렸고, 도서 지역과 남서해안 지방 일부에만 천일 염전이 남아 있어 소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천일염이 생산되기 전부터 재래식으로 소금제조가 이루어져 오다가 1930년대부터 천일염제염과 전오염이 동시에 생산되어온 전북 부안군 곰소만 일대의 천일염전 일부만이 남아있다.

이곳은 1950년대까지도 천일염과 함께 전오염이 생산되어 오다가 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천일염전이 점차 늘어나는 바람에 전오염은 없어졌고 지금은 천일염전만이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천일염전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어촌들과도 가까워 생선을 저장하기 위한 소금의 공급과 수요가 활발하였다. 염전의 전체구성과 건물들과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자연적인 조건을 잘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한편 이곳의 소금창고 등의 건축물들은 다른 서해안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재료는 동일하나 염전의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가 달랐다. 그러나 건물에 사용된 재료와 건물의 구성기법, 이용방법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곳의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염전에 위치한 건물들의 특징을 밝혀 보

5) 1997년 현재 50kg짜리 국산 천일염의 가격은 도매가가 4,000원이며 소매가는 14,000원이며 수입염은 도매가가 50kg에 1,400원이다. 소금산업현황, 대한염업조합, 1997

고자 한다. 우선 천일염전의 조건과 기초시설물들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본 다음 염전에 위치한 소금창고, 염부사택,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건물로 분류 정리하기로 한다.

3.1 천일염전의 조건

1) 지형 : 평탄한 간척지가 유리하며 인근에 큰 하천이나 높은 산등이 없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다.

2) 지반고 : 간척지의 지반고는 삭망의 만조시의 수면보다 약 2m-2.5m의 수심을 갖는 곳이 적당하다.

3) 교통 : 가급적 소금의 반출이 용이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으며, 이러한 이유로 초기 인천 주안의 염전과 광양만 염전은 철도역이 근방에 있어 소금의 운반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남서부 도서지방의 경우와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곳들은 교통의 불편함과 수요 및 생산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 소금을 저장, 비축하는 창고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4) 토질 : 점토질이 40% 내외 미사질토가 60%로 혼합된 상태가 가장 적당하며 우리나라의 남서 해안지역이 거의 이와 같은 토질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5) 기후 : 연평균 기온이 25°C 내외가 적당하고 연간 강수량 증발량이 3,000mm 이상인 곳이 적당하다. 우리나라의 천일염 작업기간은 해빙기(2월중순)에 시작되어 결빙기에 종료된다.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의 생산기는 4월 - 10월이고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인 5-6월 사이에 연간 생산량의 약 60%가 생산된다. 또 체염일 수는 135 - 150일이다. 염의 성수기는 김장용과 간장용으로 수요가 많은 초겨울(11월-12월)과 초봄(2-3월)인데 생산기와 성수기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특히 영세 세염업자에게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소금을 비축하는 창고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3.2 천일염전의 구성 건축물

1) 소금창고 : 일제치하에서 천일 소금의 장기보관을 위해 만들어진 소금창고의 구립과 조형은 이색적이다. 초창기(1907年)의 염전의 모든 시설은 동감부, 재정감사정의 일본인에 의해 독점 관리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염전의 건축물은 아마도 일본인의 지시에 의해 한국인 목수가 시공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까지도 소금창고를 지었던 목수들이 염전근처에서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사망하거나 타지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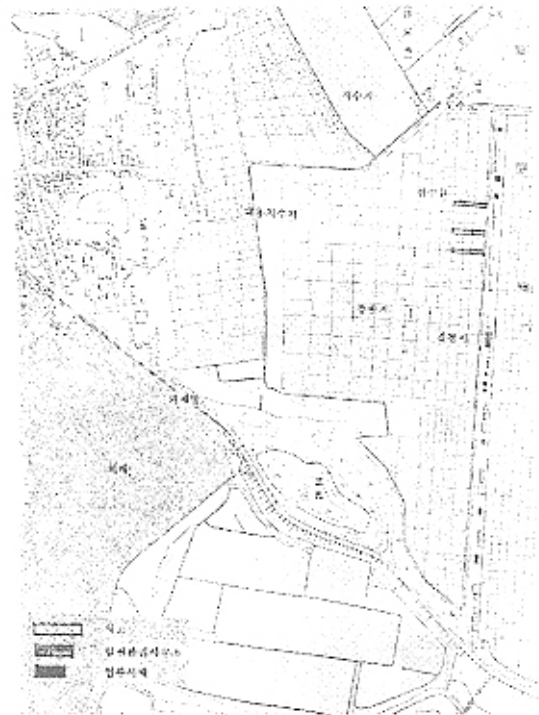


그림 2. 전북 부안군 진서면의 고평소염전 배치도

소금창고의 역할은 길경지에서 생산된 소금을 소비지로 운송하기 전, 또는 비축염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그 모습은 소금밭(염전)과 함께 염전의 풍경을 이루는 양대 요소이며 대개 동일한 모습으로 크기만 다를 뿐 목재의 기둥과 기둥사이를 거칠게 켜 판재로 마감

6) 전북 부안군 고평소지역 촌로의 증언(1997. 8)

하고 바깥부분은 방수를 위해 꼴달을 칠한 모습으로, 이러한 목재판을 겹쳐서 외벽을 구성하는 건축방법은 영국 건축양식의 영향이 가장 짙은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 해안국가, 아메리카, 카리브해, 스칸디나비아 등 세계 여러 해안국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이후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이러한 양식의 학교, 관공서, 창고 등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특히 소금창고의 구조는 소금을 가마니와 자루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 그대로의 상태로 보관하는 특성상 더욱 개성이 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비, 바람과 소금의 압력에 견딜 수 있게 사면의 벽체가 안 쏠림으로 된 구조로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영성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튼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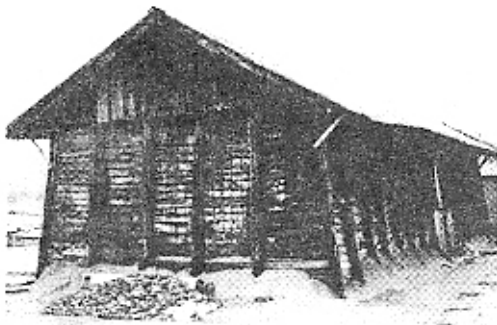


그림 3. 염전창고 -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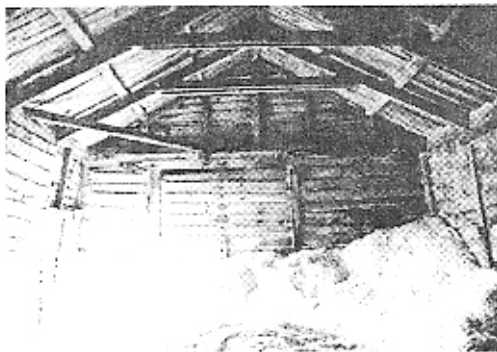


그림 4. 염전창고 -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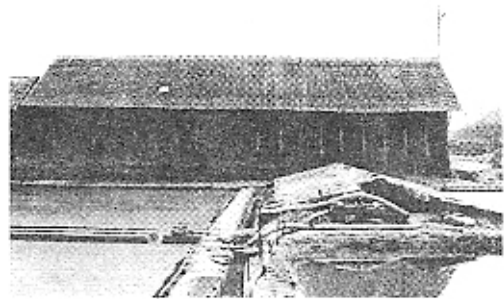


그림 5. 염전창고 - 정면

① 지붕 : 지붕의 모양은 박공지붕으로 재료는 목재로 구성된 가새구조 위에 보와 서까래를 일정한 간격으로 보낸 후 그 위에 측벽에 붙인 판재와 동일한 판재를 깔고 그 위에 골합식판을 마감한 것과 1960년 이후 골슬레이트가 생산되면서부터는 주로 부식에 강한 골슬레이트가 많이 사용되었다.

지붕의 경사각은 대개 1:1.7~1:2 정도로 물배가 급한 편으로 빗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벽에서의 처마 길이는 대개 90cm 정도로 돌출,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벽체에 닿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② 벽 : 벽면은 일정한 간격(약90cm)으로 원형목재 기둥(φ120 ~ φ200내외)을 수직면보다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약 10%가량)하여 갯벌바닥 위에 2자에서 3자 정도 땅속으로 묻었다. 이렇게 벽체를 경사지게 구성한 이유는 소금을 포대에 넣어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쌓아 보관하므로 소금의 압력에 창고 벽면이 견디도록 배려한 이유이다. 기둥의 상부 끝은 지붕면의 트러스 구조체와 연결 비티도록 설치되었으며 그 기둥과 기둥 사이는 소나무 판재(두께 : 약 2cm, 폭 16cm)를 약 4cm정도 겹치게 시공하였다. 외부는 꼴달을 칠하여 방수처리하였으며 내부는 소금이 직접 닿아 몇십 년씩 지났지만 썩지 않고 소나무 본래의 색깔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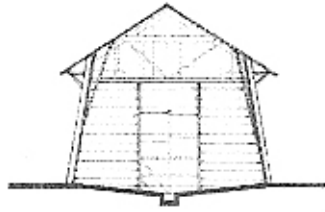


그림 6. 소금창고 단면도-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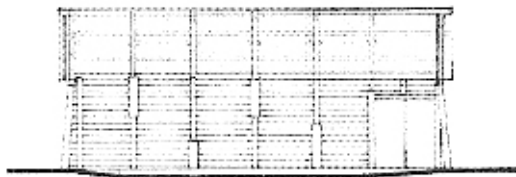


그림 7. 소금창고 단면도-정면

그리고 지면과 벽체가 닿는 부분은 갯벌흙을 약 30cm정도 높이로 쌓아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튀어 목재 벽면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갯벌흙은 물이 날으면 염분과 더불어 더욱 단단해져 삶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이며 또한 방수효과도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외벽기둥은 한칸씩 걸러 지붕드러스새와 비뿔목으로 연결, 안정성을 주었으며 창고의 박공벽은 양쪽서마 갈선을 기준으로 윗 부분이 약 15cm 정도 들출 되어 허부의 원형기둥이 측면과 동일한 높이에서 받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하였으며 아마도 이것은 원형목재의 길이감지 않아서 이렇게 시공한 것 같다.

창고의 출입문은 거의 두짝 이단이문으로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으며 위치는 옆면이든, 정면이든 구애받지 않고 염부가 염전에서 소금을 운반하여 가장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었다.

문의 크기는 높이2.1m×폭1.6m정도로 염부가 외방수레를 끌고 드나들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지면에서 처마 끝까지의 높이는 창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개 2.9m~3.0m정도이다. 그리고

창고를 확장할 때에는 박공면 쪽으로 기둥 칸수를 늘여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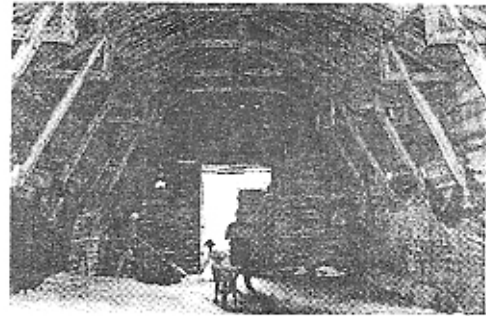


그림 8. 소금창고 내부바닥(흙인 경우)

③ 바닥 : 소금창고의 바닥은 대개 갯벌흙 바닥을 그대로 두거나 간혹 송판을 깔아 사용하기도 하며 갯벌흙 바닥은 소금의 간수가 스며들어 마치 콘크리트를 타설해 놓은 것처럼 매우 단단하여 소금에 흠이 섞이지 않는다. 바닥면은 양쪽 벽체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어 소금을 쌓아 놓았을 때 생기는 간수가 가운데로 모여 외부로 흘러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가운데에는 소나무 판재가 약 30cm폭으로 길게 깔려서 간수가 모여도 외발 손수레를 끌고 다니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그림 9. 소금창고 내부바닥(송판인 경우)

왼벽쪽으로 높게 쌓인 개흙은 소금에 절여져서 돌 같은 강도로 변했기 때문에 벽체 기둥을 구조적으로 지탱하는 역할도 한다.

2) 임부사택 : 전북 부안군 곰소염전의 주택은 195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현재 9동이 있으며 그 평면구성은 모두 같은 田字形으로 나타난다. 이 임부사택은 염전도로를 정면으로 하고 뒷면으로는 염전을 두고 있으며 정면 우측 마당 쪽으로는 화장실, 그리고 왼쪽 마당 앞쪽으로는 수돗가와 그 옆으로 텃밭을 끼고 있으며 사택 앞마당에는 짓갈을 담근 용기가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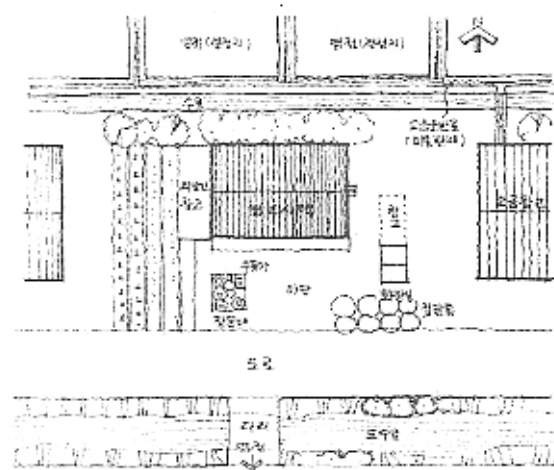


그림 10. 임부사택 배치도

내부구성은 염전에서 일하는 염부들의 가족들과 또는 염부 혼자서 기거하는 방을 기본으로 창고를 겸한 부엌 1칸, 방 2칸으로 이루어진 정면과 방 2칸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기본형태이다. 경북 산간, 강원도, 함경도의 민가에서 볼 수 있는 양동집 평면형과 비슷하나, 기능과 구조가 양동집 형식과는 다르다.

방들의 칸막이가 田字形로 나뉘지고 한쪽은 부엌이 길게 자리잡고 있음은 마치 일본의 사칸형(四間型) 민가와 유사하게 되었다. 이것은 친일 염전의 시작이 일본인에 의해 시작된 원인으로,

일본의 田字形 민가형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방 한칸의 치수는 9자(2.7m)이며 측면과 정면의 1칸의 치수는 동일하다. 특이한 것은 측면의 방 2칸중 염전쪽의 방은 마루를 깔아 염전쪽을 바라볼 수 있어 더운 여름철에 휴식을 취하며 염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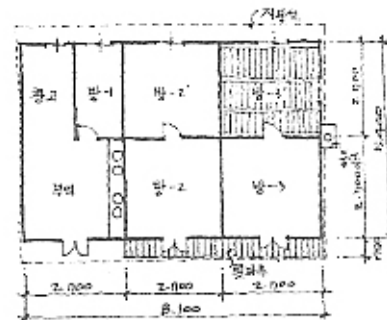


그림 11. 기본 평면도
(면적 : 43.1㎡, 13.3PY)

또 다른 평면형태는 기본형태의 평면에서 염전쪽 방에 마루를 덧대어 증축하여 방+마루방+부엌의 구조를 갖춘 형태가 있는데 이 평면은 주택 1동에 가족을 거느린 염부 1세대와 가족이 없는 염부 혼자만을 위한 세대가 같은 동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부엌 측면쪽으로는 의양간+창고를 겸한 공간을 덧붙여 증축하였다.



그림 12. 유형 A - 사진

7) 강화도 염전에는 사택과 밀려 떨어진 세방에 염부가 살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어 마치 전라도 농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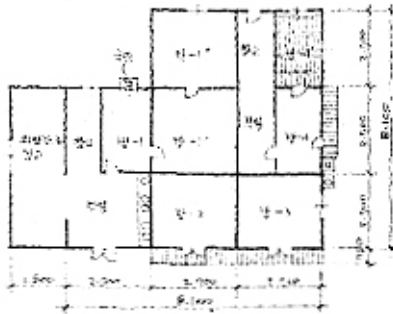


그림 13. 유형 A - 평면도

또 다른 유형의 평면은 한 건물에 세 가족이 공동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평면으로 이러한 평면은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시기에(2월말-3월초) 이사를 와서 소금생산이 끝나는 10월말경에 다시 이사를 나가는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소금생산에만 전념하는 임부들이 없어서 거의 모든 사택들은 소금이 생산되는 시기에만 거주하거나 아예 농사를 지으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겸업 임부가 많기 때문에 임부사택은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14. 유형 B-사진 1



그림 15. 유형 B-사진 2



그림 16. 유형 B - 평면도

내부방의 구조는 방과 방사이에 출입문이 있어 서로 통하게 되어 있으며 벽체는 나무를 얹

어배어 혹은 바르고 다시 그 위에 시멘트 몰탈을 발라 마감마감을 하고 난 후 종이 도배지를 발랐다.

외벽은 마찬가지로 나무와 짚을 얹어배어 혹은 바르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탈을 발라 마감하고 도색작업을 하지 않아 희색빛의 시멘트 색깔을 띠거나 또는 황토흙 바른듯한 상태로 된 것도 있다.

지붕의 모양은 박공지붕으로 대개 골슬레이트로 되었으며 지붕의 물매는 1:2 정도로 소금창고의 물매와 거의 동일하다.

A형과 B형의 주택형식은 소속지역의 전통주거형식과 판이한 차이를 나타내는 평면구성이다. 우리나라의 양동집 구조형식을 연상케하나, 다가구나 공동주거성이 강하며, 일본의 田字形식(4칸 형식)의 변형으로도 보여진다.

3) 관리사무소 건물

임전의 소금 생산과 판매, 그리고 임부들의 노임 등을 관리했던 건물로 이용되었으며 소금의 출하시 포대에 담아 계량하던 장소와 출하직전에 포대를 관리하던 창고, 그리고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졌고 2층부분은 주로 전망대 역할로 주변의 임신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도록 되었으며 전체적인 건물외관 모습은 일제시대에 지어졌던 상점이나 공장, 정미소 그리고 창고 건물들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에도 관리사무소 건물로 이용중이며 전체규모는 약 60평 정도이다.



그림 17. 관리사무소 전경

4. 結 論

우리나라의 천일소금을 가능케 한 천일염전은 자연의 특혜였다. 그러나 국토개발과 공업화,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등은 천일염전의 존재를 불가능케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천일염전 중 가장 먼저 생겼던 곳들중 북한의 것을 제외하고 인천 주안, 소래, 군자염전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도시지역과 가까운 염전은 계속 사라지고 있으며 다만 섬지역과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남서해안 지역에서 일부 염전이 천일염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조사한 강화도의 석모도 염전, 진북 부안군 곰소염전, 그리고 전남 해남의 염전 등의 공간구성과 소금창고, 주택, 관리사무소의 건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염전전체의 공간구성은 주변에 통풍이 막히는 산이 없이 넓은 갯벌이 있는 곳으로 주변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소금의 수송이 쉽도록 된 곳이며, 강이나 냇물의 범람으로부터 피해가 미치지 않고 마을과도 근접하여 인력의 수급이 쉬운 장소이다.

2)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자연제방(도로)과 저수지, 도수로, 증발지, 결정지, 합수류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염전공간과 공간사이에 소금창고와 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배치되었다.

3) 기후조건은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지만 상대적 해빙일수와 소금생산 가능기간의 평균기온이 매우 높으며, 통풍이 잘 되어 수분의 증발량이 높은 곳이다.

4) 염전창고는 창고건물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소금밭(결정지)을 끼고 있어 생산된 소금을 쉽게 운반, 저장할 수 있으며 건물 모습은 박공지붕으로 물매가 급하여(1:2) 빗물이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막았으며 벽체는 널판을 겹쳐 시공하여 역시 빗물의 침투를 막고 있다. 또한 벽체가 밑에서 위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약 10° 가량 기울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금의 보관 특성상 나타

나는 소금의 큰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배려된 것이다.

바닥은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한 것이 아니고 맨흙 바닥에 소금의 간기가 스며들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해진 상태로 안쪽으로 경사지게 되었으며 이것 역시 소금의 압력이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소금의 간수가 한 곳으로 모여 외부로 다시 흘러 나가게끔 되었다.

소금창고의 건축은 재료사용이나 조형성은 영성해 보이지만 구조적인 배려나 위치의 선택은 대단히 합리적으로 되었으며 주변에 있는 재료(갯벌흙과 소나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소금을 보관하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5) 염부사택으로 사용되어 온 주택은 소금창고와 창고사이에 배치되었고 박공지붕에 슬레이트로 마감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지어진 시기로 보아 일본 주택 방식인 田자형 주택의 변형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경북산간, 강원도, 함경도의 민가에서 볼 수 있는 양동집 평면형과도 비슷하나 기능과 구조가 다구나나 공동주거형식에 가까운 양동집 형식과는 다르다.

6) 관리사무소 건물은 염전 전체 공간의 거의 중심부분에 위치한 2층 다락형 건물로 관입이었던 시기에 염전의 관리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구조 형태로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던 상점 건물이나 공장건물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천일염전의 건축들은 우리의 전통 건축과는 이질적 평면, 구조, 조형을 가진 건축으로서 시대상으로는 한국근대건축에 속하는 건축물들이며 특히 일본인에 의해 건축이 주도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일본 건축적 특징을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사료케 한다. 특히 주거형에서는 집단공동주거형식의 시초라고도 보여진다.

參考文獻

1. 二國史記
2. 고려사
3. 고려사절요
4. 조선왕조실록 CD롬
5. 경국대전
6. 속대전
7. 만기요람
8. 중보문헌비고
9. 삼국유사
10. 삼봉집
11. 한국문헌대사전
12. 한국수산지, 농상공부, 1908
13. 홍이십, 조선과학사, 정음사, 1946
14. 이증환, 探里志, 은유문화사
15. 소금산업현황, 대한염업조합, 1997
16. 조선전대사, 조선총독부, 1936
17. 고승제, 근세한국산업사연구, 대동문화사, 1959
18.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19. 염업요람, 전매청염삼국, 1955
20. 염백서, 상공부, 1964
21. 염업현황과 당면한 긴급대책, 대한염업조합, 1978
22. 新興의 朝鮮, 조선총독부, 1929
23. 朝鮮物産案内, 朝鮮及滿洲社, 1938
24. 朝鮮의 經濟事情, 朝鮮總督府, 1938
25. 노도양, 15세기 朝鮮의 産業에 대한 地理的 考察, 1969
26.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국립민속박물관, 1994
27. 高坡盧道陽 博士 고희기념논문집, 우리나라 제염업의 전개과정비고, 명지대학출판부, 1979
28. 한인수, 우리나라의 염업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부설 산업경영연구소, 1979
29.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생성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2
30. 月刊 지오(GEO), (주)두비인터내셔널, 1997 1月號, pp.82-100
31. 月刊建築人, 1996. 9月號, pp.73-80